

# 4 월 5 일 주일, 가정 예배

기도(가족 중 한 사람)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말씀 나누기: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본문: 호세아 Hosea 13:4-8

(문맥과 의미에 따라, 한글 성경으로는 쉬운 성경을, 영어 성경은 ESV, NIV 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쉬운 성경) 4 “나는 네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었다.**

**(ESV) 4 But I am the Lord your God from the land of Egypt; you know no God but me, an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

**(NIV) 4 “But I have been the Lord your God ever since you came out of Egypt. You shall**

acknowledge no God but me, no Savior except me.

5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5 It was I who knew you in the wilderness,  
in the land of drought;

5 I cared for you in the wilderness, in the land of  
burning heat.

6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6 but when they had grazed, they became  
full, they were filled, and their heart  
was lifted up; therefore they forgot me.

6 When I fed them, they were satisfied; when they  
were satisfied, they became proud; then they  
forgot me.

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7 So I am to them like a lion; like a leopard  
I will lurk beside the way.

7 So I will be like a lion to them, like a leopard I will  
lurk by the path.

8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사자처럼 그들을

뜯어먹고 들짐승처럼 너희를 찢어 놓을 것이다.

8 I will fall upon them like a bear robbed of  
her cubs; I will tear open their breast,

**and there I will devour them like a lion,  
as a wild beast would rip them open.**

**8 Like a bear robbed of her cubs, I will attack them  
and rip them open; like a lion I will devour  
them— a wild animal will tear them apart.**

(설교 내용은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나누어도 좋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이사야 49:15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NIV) Isaiah 49:15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e?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입니다. 엄마는 자기  
아이를 못 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자기  
품 안의 아이를 잊어버리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하나 밖에 없는 구원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 이집트에 400 년동안 노예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야다’)해야 했습니다.

(쉬운 성경) 4 “나는 네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었다.

(ESV) 4 But I am the Lord your God from the land of Egypt; you know no God but me, an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

♥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옆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롬 5:8 절. 내가 잘 해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칭찬받고 멋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의 노예였을 때, 내가 실수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쉬운성경) 로마서 5:8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NIV)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도 나를 돌보셨습니다.**

5 절, 하나님은 광야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사랑해(‘야다’,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쉬운 성경) 5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KJV) 5 I cared for you in the wilderness, in the land of burning  
heat.

6a 절.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릴 때 먹이십니다.

부족할 때 채워 주십니다.

(쉬운 성경) 6a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

(NIV) 6a When I fed them, they were satisfied; ...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황무지)에서 40 년 동안  
메추라기, 만나,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겁니다. 우리는 벌써 여러 번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나를 어떻게 도와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 뿐인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며, 또한

## ✓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주인입니다.

6b 절. 북이스라엘은 배부르고 만족스러워지지자 교만해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 버렸습니다.

(개역개정) 6b...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NIV) 6b ... when they were satisfied, they became proud; then they forgot me.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증인이 되고, 두 사람은 반지를 주고 받으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다면, 아주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럴 땐 화를 내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7 절. 하나님이 화내시는 겁니다.

(쉬운 성경) 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ESV) 7 So I am to them like a lion; like a leopard I will lurk  
beside the way.

8 절. 하나님의 분노는 마치 새끼 잃은 곰같이, 자기  
새끼와 무리를 먹이기 위해 사냥하는 암 사자같이  
무섭습니다.

(쉬운 성경) 8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사자처럼 그들을 뜯어먹고 들짐승처럼  
너희를 찢어 놓을 것이다.  
(NIV) 8 Like a bear robbed of her cubs, I will attack them and rip  
them open; like a lion I will devour them— a wild animal will tear  
them apart.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더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에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화내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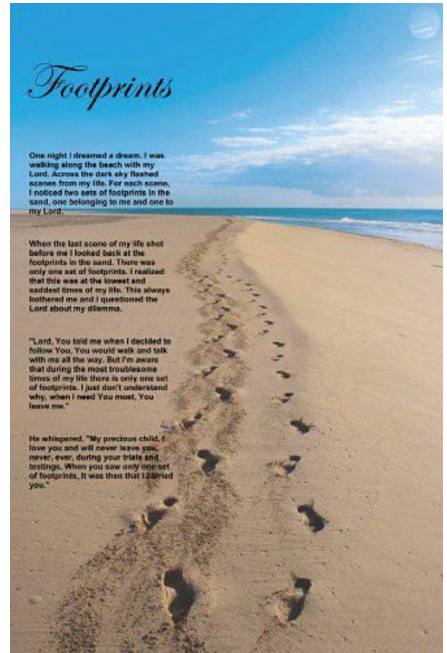
오래전 마가렛 피쉬백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 예화: 모래위 발자국

어느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기의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지나온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가 새록새록 떠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시기에는 한 사람 발자국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시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셨었나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보배로운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지.”

♥ **하나님은 하나 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는 지금도 나를 돌보십니다. 심지어 나를 업고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 (다같이) 기도

-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나쁜 생각들이 더 퍼지지 않고 멈추게 해 주세요
-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